

연중 제10주일 복음 나누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마르 3,33)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마르 3,20-35
-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2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 21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22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 23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 24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 내지 못한다.
- 25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 내지 못할 것이다.
- 26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 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 27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 29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 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 31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 32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 3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 34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 35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오늘 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오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들의 모함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는 예수님께 베엘제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인데, 베엘제불은 히브리어 복합명사로서 (바알+제불), 직역하면 ‘집 주인’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이교도 신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30절에서 베엘제불을 일컬어 ‘더러운 영’이라 하는 걸로 봐서 그는 귀신들의 두목이 하나라 귀신의 일종으로 추측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귀신이 들렸다는 모함을 종종 받으셨습니다.(요한 7,20 ; 8,48 ; 10,20) 둘째 모함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축출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가족과 일가친척으로부터 배척받은 것도 모자라 당대의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비난과 의심 받은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모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사람이 취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아주 분명한 진실도 가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친척들의 오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다고 함으로써(3,21)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모함에 의한 것입니다(마태 12,24; 마르 3,22).

그런데 이런 마르코 복음과는 달리 루카 복음(루카 8,19-21)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가 분명하지 않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새로운 가족 범주에 넣기 위해 루카 복음사가가 의도적으로 어머니와 형제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도한 하늘나라의 신비에 관한 비유, 즉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등불의 비유가 ‘하느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씨는 ‘하느님의 말씀’(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말씀인 씨를 뿌리고 꾸준히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느님 나라에 들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 알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15절과 18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가서 하느님 나라에 들게 될 것이므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느님과의 가족관계는 이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가족관계는 혈통이나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예수님의 친척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성모님은 예외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벌써부터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두 눈을 멀쩡히 뜨고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밖’에(20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안으로 불러들이지 않으십니다. 보려는 사람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눠 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